2016. 10.

《2016. 9. 20(화) ~ 9. 29(목), 이탈리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 라 북 도 의 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Contents

목 차

제1장 연수개요 1
- 1 동기 및 배경 1
- 2 개 요 2
- 3 내 용 2
- 4 주요일정 3
- 5 연수자 명단 4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5

제1절 기관 방문 5
- 1 로마 건축 협회 5
- 2 로마시청 10
- 3 폼페이 유적지 16
- 4 피렌체 유적지 22
- 5 우피치 미술관 27

제2절 선진지 정책 벤치마킹 32
- 1 이탈리아의 관광정책 32
- 2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보전 정책 33
- 3 이탈리아의 로컬가이드 정책 35
- 4 이탈리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36
- 5 이탈리아 로마 건축양식 38

제3장 연수 결과 40
- 1 장기 전략의 필요성 40
- 2 학술 연구 조사의 중요성 41
- 3 전문가이드 육성과 배치 42

제4장 연수 후기 43
- 1 전북도의회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 43
- 2 문화건설안전위원실 직원 45

제1장 연수개요

1 동기 및 배경

○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의 건축양식을 비롯한 도시건설 분야의 발전상황을 비교 시찰하여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로마양식이 이탈리아의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된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습득 및 정책대안을 제시

○ 관광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보존 등 관광객 유치전략 기술을 습득하고 문화·관광정책 운영상황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도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외국의 문화재 관리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도내 문화재 관리 운용에 접목하여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 관리방안 모색

○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용을 성공적으로 병행시킴으로써 관광 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

○ 위원들의 현지 시찰을 통해 문화·관광·건설 전문분야 정보축적 및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2 개 요

○ 연수기간 : 2016. 9. 20(화) ~ 9. 29(목) / 8박 10일

○ 방 문 국 : 이탈리아

○ 방 문 단 : 13명

- 의　　원 (8) : 문화건설안전위원 8명
- 의원보좌 (5) :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3명, 정책연구4팀 2명

3 내 용

○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나폴리, 베니스, 밀라노 등)

- 고대시대 세계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풍부한 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유산의 일방적인 활용에 앞서 학술 연구조사 활동에 집중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더 흥미로운 것은 학술 연구조사가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며 향후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임

- 이탈리아에서 여행가이드는 국가고시를 통과한 후 활동하게 되므로 가이드로서의 자부심이 크며,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기관방문

기관방문 중점

1. 로마의 독특한 건축양식이 관광산업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2. 문화재관리와 관련하여 건축 및 도로관리 분야는 어떻게 유지관리하는지?
3. 폼페이 도시의 붕괴원인은 무엇이며 발굴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4. 피렌체 유적지의 문화재적 가치와 영화 등을 통한 도시 홍보 효과는?
5. 우피치 박물관의 관람형태 및 방법은 어떤지?
6. 미술 작품 등의 소장품에 대한 선진화된 관리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4 주요일정

일 자 (요일)	시간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주요내용
9.20 (화)	07:00 13:35	전북도의회 인천공항	인천공항 로마		· 인천공항 도착 (11:00) · 로마공항 도착 (19:25) · 호텔 투숙
9.21 (수)	09:00	로마	로마	**기관**	**· 방문 (로마 건축협회)**
	14:00	로마	로마	**기관**	**· 방문 (로마시청 문화재관리부서)**
	15:00	로마	로마	견학	·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팔라티노언덕 등 문화시찰 · 석식 후 호텔 투숙
9.22 (목)	09:00	로마	로마	견학	· **바티칸시국 및 박물관**, 성베드로 대성당 등 시찰 · 트레비분수, 나보나 광장, 스페인 광장 등 시찰 · 석식 후 호텔 투숙
9.23 (금)	09:00	로마	로마	**방문**	**· 복원 문화 유적지 폼페이 등 시찰** *** 담당 공무원 안내 및 설명**
	14:00	로마	로마	견학	· 나폴리항구, 노래의 도시 쏘렌토 등 문화탐방 · 석식 후 호텔 투숙
9.24 (토)	09:00	로마	피렌체	**방문**	**· 복원 문화 유적지 피렌체 지역 등 시찰** *** 담당 공무원 안내 및 설명**
	14:00	피렌체	피렌체	견학	· 두오모, 종탑세례당, 산로렌초 성당 등 시찰 · 가죽시장,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 · 미켈란젤로 언덕 및 광장, 베키오 궁전 및 다리 등 문화 탐방 · 석식 후 호텔 투숙
9.25 (일)	09:00	피렌체	피렌체	견학	· 미켈란젤로 언덕 등 시찰
				방문	**· 우피치 미술관 방문**
	14:00	피렌체	베니스	견학	· 시내 문화 탐방 및 베니스로 이동 · 석식 후 호텔 투숙
9.26 (월)	09:00	베니스	베니스	견학	· 부라노섬, 무라노섬 탐방 · 석식 후 호텔 투숙
9.27 (화)	09:00	베니스	밀라노	견학	· 탄식의 다리, 산마르코 성당 및 광장, 리알토 다리, 두칼레 궁전 등 시찰 · 석식 후 호텔 투숙
9.28 (수)	09:00 22:00	밀라노 공항	밀라노	견학	· 두오모 성당, 스칼라 좌 오페라하우스, 스포르체스코성 등 문화 탐방 · 밀라노 공항 출발
9.29 (목)	16:30 21:00	인천공항	인천공항 전북도의회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전북도의회 도착 후 해산

5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3명	
도의회 (13명)	문화건설안전 위원회 (8명)	위 원 장	한 완 수	
		부위원장	최 은 희	
		〃	장 학 수	
		위 원	강 영 수	
		〃	최 진 호	
		〃	이 상 현	
		〃	박 재 완	
		〃	양 성 빈	
	문화건설안전 전문위원실 (5명)	주 무 관	김 학 진	
		주 무 관	이 영 걸	
		주 무 관	문 동 환	
		주 무 관	변 혜 진	
		주 무 관	유 경 희	

제2장 주요 연수 내용

제1절 기관 방문

1 로마 건축 협회

❑ 방문목적

○ 로마 건축 협회를 방문하여 로마 건축양식의 발전방향 비교 시찰 및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로마양식이 이탈리아의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된 방안 청취

○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습득 및 정책적 대안 도출

❑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21(수) 10:00 ~ 11:00

○ 장　　소 : 로마 건축 협회

○ 면 담 자 : 건축협회 건축사 마르코

○ 내　　용 : 로마 건축 협회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등

❑ 주요내용

○ 설명내용

◈ 로마의 건축양식은 독자적으로 창작되었다기보다는 다른 민족의 장점을 모아 종합화를 잘 해낸 결과에 가까움. 그럼에도 로마는

서양 건축역사에서 가장 많은 건축 문화유산을 남겼고, 내용면에서도 서양 건축의 바탕을 이룬다 할 것임

◈ 그리스 건축문화와도 차이가 커서, 같은 시기의 고전주의에 속하면서도 그리스 고전주의와 로마 고전주의를 따로 구별하고 있으며, 적어도 서기 10세기경까지 유럽 건축은 여전히 로마시대 건축술에 의존하고 있었음

◈ 건축양식 사조로 보면 서양에는 현대에도 로마 건축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가져오는 건축가들이 많음

❑ 질의답변

Q : 로마시대에 건축되어져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건축물 중 문화유적의 실용성을 대표할 만한 좋은 사례를 설명해달라

A : 유럽 화폐 중 5유로 지폐의 뒷면에 그려질 정도로 유명한 건축물인 '퐁 뒤가르'는 2천년전 고대 로마시대에 건축된 수도교(水道橋)로, 198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됨. 수로는 전체 높이 49m의 3층 구조로 커다란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지어졌는데, 약 50km 떨어진 님(Nim) 지방까지 물을 공급하였음. 2천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거의 손상 없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있는 건축물임.

Q : 고대 로마 건축양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 고대 로마시대의 종교적 상황을 보면, 제사의식은 행위예술이지만 로마인들은 제사의식이 어떤 공간 속에서 행해진다는 단순한 사실로

건축이 창조될 수 있는 힘을 지님. 로마의 건축가들은 기도하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신의 기적을 간구했던 종교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예배의식들을 위해 적절한 공간의 틀을 만들어 냄. 종교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후, 좌우가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도록 설계됨

로마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공화정 시대는 BC 510년경에서 BC 44년까지 공화정이 유지되었는데 초기 제정시대는 AD285년까지, 후기 제정시대는 1453년의 동 로마 제국의 멸망 때까지 지속됨

로마의 행정·법률적 상황을 보면, 방대한 로마제국은 효과적인 대규모 행정과 신속한 법률적 절차를 필요로 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로나 수로 같은 거대한 토목공사와 효과적인 도시계획 기법을 실현에 옮겼음

로마의 예술·오락적 상황을 보면, 로마인들은 최초로 건축의 내부 공간을 대규모로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콜로세움임. 콜로세움을 통해 로마인들은 예술과 오락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당시 로마에는 목욕탕도 있어서 로마인들의 청결성 또한 엿볼 수 있음

Q : 로마시대 건축물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사례는?

A : 신전을 비롯하여 장대한 바실리카 ·극장 ·경기장 ·별장 ·목욕장 ·개선문 ·기념주(記念柱) ·수도 ·도로 등이 역대 황제에 의하여 세워짐.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바실리카 및 개선문,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별장, 콜로세움, 카라칼라 황제의 목욕장, 트라야누스 황제의 기념주, 갈의 수도교(水道橋) 등이 있음.

❑ 시 사 점

○ 비록 고대에서 중세로 이어지는 로마의 건축양식이지만 건축의 미학적 측면이 철저히 중시되고 있다는 점은 현대 건축문화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예컨대, 전라북도를 포함한 국내의 건축문화는 건축의 미적 측면보다는 실용적 측면에 치우쳐 있어서, 도시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됨

○ 건축에 대해 공학적, 실용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미적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면 건축물이 곧 문화자원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축에 대한 행정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유형의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부담을 뛰어넘는 부가가치 창출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문사진



방문 사진



방문 사진

2 로마시청 문화재관리부서

❑ 방문목적

○ 로마 시내 유적 등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물 및 도로시설 관리 업무와의 연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 문화재 관리 및 도로정비의 선진적 방법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전북도 문화재 관리에 적극 반영

❑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21(수) 14:00 ~ 15:00

○ 장　　소 : 로마시청

○ 면 담 자 : carlo D'acaardi 공무원

○ 내　　용 : 로마시 문화재 건축 및 도로관리 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등

❑ 주요내용

○ 건축분야

◈ 로마 미술의 특징은 건축물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음. 로마의 건축은 그리스 건축의 구성(기둥과 들보)과, 아치형(에트루리아의 성문이나 분묘에 쓰이고 있는 형태)을 채용함으로써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축조했음. 오더의 양식에서는 그리스의 도리아·이오니아·코린트 세가지 양식 외에 콤포지트(composite) 양식(이오니아식 주두와 코린트식 주두를 합친 형태), 토스카나 양식(도리아 양식의 변형으로서 주초(柱礎)가 있고 홈을 새기지 않은 형태)이 생겨났음.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는 아치형의 사용과 더불어, 벽돌이나 돌을 가루로 만든 일종의 시멘트가 건축 공법이 사용되어, 거대한 건축의 축조를 가능하게 했음.

◈ 로마 시대를 대표하는 거대한 건축으로는 콜로세움·판테온·수도(水道)·목욕장 등이 있음. 가장 대표적인 콜로세움은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기원 72년에 기공하고, 그 아들 티투스대제가 80년에 완성한 타원형의 대투기장(大鬪技場)으로서 그 장경(長徑) 188m, 단경(短徑) 156m, 높이 48.5m, 외관 4층의 대건축물임.

◈ 외관상의 미를 추구한 그리스 건축물과 달리, 로마 건축물은 내부 공간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용성을 중시한 로마인들은 내부의 거주성(居住性)에 중점을 두고, 내부를 넓게하기 위하여 벽돌로써 아치형을 사용했고, 아치형에서는 상부 아치의 중력은 원 둘레의 각 부분에 균등하게 분산되기 때문에, 기둥의 수를 줄이고 내부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

◈ 로마 건축사상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판테온은 고대 로마 최대의 원개건축(圓蓋建築)임. 현존하는 신전은 기원 120년경까지 하드리아누스제(帝)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당(堂)의 지름은 43.2m, 천장의 높이도 당의 지름과 크기가 같고, 벽체의 두께는 6.20m, 당의 가운데에는 지름 9m의 원형 천창(天窓)이 있음. 내부의 주위에는 코린트식의 기둥을 가진 일곱개의 감실(龕室)(성체를 모셔 두는 공간)이 있고, 둥근 대청 북쪽 입구에 코린트식의 기둥 8개를 나란히 세운 현관랑(玄關廊)이 있으며, 그 외관은 극히 간소하여, 충실한 내부의 아름다운 공간과는 대조적임.

◈ 로마 건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성은 실용성과, 주제의 다양성임. 로마에서는 신전 뿐만 아니라 바실리카, 극장, 목욕장, 별장, 개선문, 수도, 기념탑, 교량 등 다양한 분야의 건축물이 축조되었음.

○ 도로 분야

◈ 로마의 도로는 고대 로마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 로마의 도로 덕분에 로마인은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음. 로마의 도로 체계는 50,000 마일의 포장 도로와 250,000마일의 주요 간선 도로로 구성되어 있음. 로마가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로마시를 중심으로 29개 정도의 거대한 군용 도로가 뻗어있었음. 도로를 놓기 위하여 언덕은 깎고 골짜기는 메웠으며, 로마 제국은 372개의 거대 연결도로를 통하여 113개 속주를 구획하였음.

◈ 로마인들은 도로(via) 건설에 주력하였는데, 도로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재화를 옮기는 수단이었음. 당시에 누구나 로마 도로로 걷거나 지나가거나 가축, 마차 등을 몰 수 있었으며, 도로는 작고 거친 길, 승마길, 터널, 수레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음. 12표법에 따르면 로마 도로의 최소 폭은 직선 구간에서 2.45m였으며, 굽은 구간에서는 4.9m로 계획하여, 현재의 도로건설 기법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음.

◈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로마 군단은 신속하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일부 도로는 수 천년이 지난 지금에도 쓰이고 있음. 고대 말기에 이러한 로마 도로는 도리어 이민족의 침략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음.

❑ 질의답변

Q : 로마시대의 건축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온전히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A : 로마의 건축가들은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는 자갈, 물, 진흙으로 구성된 재료로 건축현장에서 만들어졌

음. 로마인들은 콘크리트를 사용해 최초로 받침대 없이 거대한 내부 공간을 덮을 수 있었음. 그 예로, 회의를 하는 공회당, 바실리카, 군인 병원, 원형 경기장, 전차 경기장 등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바실리카는 채광창이 있고, 반원 형태를 한 직사각형의 건축물로 로마시대에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후 중세 건축에서 널리 모방되었음.

Q : 로마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지?

A : 로마의 건축가들은 아치와 궁륭, 돔을 개발하였음. 로마의 건축은 그리스 형식을 사용했지만 아치와 같은 건축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리스 건축보다 기둥 간격을 멀리 배치할 수 있었음. 또한 아치는 로마인들이 커다란 내부 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새로운 건물의 건축뿐만 아니라 전통 건축을 개선할 때도 사용하였음. 그리스인들은 작은 규모의 아치를 사용했으나, 로마인들은 대규모 아치를 사용해 아치형 건물을 많이 건축했음.

Q : 로마의 문화재 소관 부서에서 도로에 관한 부분도 같이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A : 로마의 도로 체계는 50,000 마일의 포장도로와 250,000마일의 간선도로를 총괄하여 아직도 대부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이러한 도로에 관해서는 문화재와 같이 일정 보수를 하게 되므로 문화재관리 부서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음.

❑ 시 사 점

○ 로마시대의 건축양식을 보면, 내부 공간에 충실을 기하고 실용성을 중시한 로마인들이 내부의 거주성에 중점을 두고, 내부를 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벽돌로써 아치형을 사용한 측면이 있는 바, 전라북도는 건축양식에 있어 실용성과 더불어 전라북도만의 한옥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살린 건축양식을 문화재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로마의 건축은 그리스 형식을 사용했지만 아치와 같은 새로운 건축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그리스 건축물보다 커다란 내부 공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전라북도도 고대 건축양식과 현대양식 그리고 전북도만의 건축양식을 종합적으로 특성화하여 그것이 바로 문화재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까지도 함께 관리하는 것은 도로도 하나의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재 별도, 건축 별도, 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원화하는 관리방안도 함께 고민할 시점임

❑ 방문사진



방문 사진



방문 사진

3 폼페이 유적지

❑ 방문목적

○ 폼페이 유적지 방문을 통해 도시의 붕괴 원인과 발굴상황을 청취하고, 문화재 발굴 방법 등을 벤치마킹

○ 도시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이면서 후에 문화재가 되고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처럼 독특한 형태의 문화유산인 만큼 전북도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검토 분석

❑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23(금) 11:00 ~ 12:00

○ 장　　소 : 폼페이 유적지

○ 면 담 자 :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교 발굴 책임자 Giuseppe Lindinerro

○ 내　　용 : 폼페이 유적지 발굴현황 등 청취 및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주요내용

○ 폼페이 도시의 붕괴 원인은

서기 79년 8월 24일 정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고, 화산은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분출물을 뿜어내면서 인근 도시로 쏟아져 내렸음.

나폴리 남동부에 자리하고 있던 폼페이는 이 화산 폭발로 커다란 피

해를 입고 소멸한 도시 중 하나로,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은 순식간에 폼페이를 뒤덮어버렸음. 운 좋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겠지만, 조금이라도 늦은 사람들은 지상을 뒤덮은 고온의 가스와 열구름에 질식하거나 뜨거운 열에 타 죽었음. 이 폭발로 당시 폼페이 인구의 약 10퍼센트인 약 2,000명이 도시와 운명을 함께 했다고 함.

당시 폼페이는 BC 89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이후 철저하게 로마화가 진행된 도시였으며, 로마의 상류계급이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 했음. 화산이 폭발하기 전인 63년 2월에 대지진이 일어났지만 도시는 착실하게 재건되고 있었음. 그러나 그로부터 16년 뒤 도시 전체는 화산재 밑에 묻혀버리고 말았음.

폼페이 멸망의 참극에 대해서는 당시 로마의 정치가 소(小)플리니우스가 역사가 타키투스에서 보낸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음. 당시 소플리니우스는 베수비오 화산에서 4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나폴리만 입구 미네눔에 머물고 있었으며, 폭발 당일 소플리니우스의 어머니가 베수비오 화산 상공에 이상한 모양의 거대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소(小)플리니우스에게 알려주었음. 소(小)플리니우스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재빨리 어머니와 함께 먼 곳으로 피난을 떠났으며, 후에 그는 편지 속에서 그때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였음.

그리고 그의 숙부인 대(大)플리니우스는 당시 함대의 제독으로 군함을 타고 나가 구조 활동을 펼쳤지만 독성이 강한 화산 가스에 질식해 그만 죽고 말았음.

당시 로마 황제 티투스는 폼페이 참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곧바로 구조 조치를 취했으나, 화산 분출물에 의해 도시는 완전히 파묻혀버리고 말았음. 로마 황제까지 나서서 폼페이의 몰락을 막아보려 했지만 폼페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임.

❑ 질의답변

Q : 폼페이는 발굴 과정은?

A : 폼페이 발굴은 1549년 수로공사 중에 유적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음. 1748년 당시 발굴로 광장, 목욕탕, 원형극장, 약국 유적지 등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3분의 2가 발굴되었음. 따라서 발굴이 완료된다면 로마 미술의 최고걸작으로 평가받는 '큐피드 벽화' 와 '춤추는 폰의 동상' 등과 같은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 더욱 많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안타깝게도 2010년 11월 6일, '검투사의 집'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기도 하였음.

Q : 폼페이 화산 폭발 당시 상황은?

A : 많게는 3만 명까지 살았다는 폼페이에서 발굴된 시체는 1,100구에 불과함. 이런 사실은 화산 폭발 이전에 많은 이들이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며, 화산 폭발로 모두가 한꺼번에 최후를 맞았다는 통념과 다르고 실제로 지진 등 전조증상이 숱하게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음.

Q : 당시 폼페이의 도시 규모는 어떻게 추측 되는지?

A : 폼페이는 한 변이 약 2킬로미터에 이르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도시 서쪽에는 포럼이라 불리는 광장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신전과 시장, 시청 등이 모여 있었음. 조사를 통해 바로 이 지역이 폼페이의 종교·정치·경제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도시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들은 모두 포장되어 있었으며,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사거리에서는 공동 수도와 각 가정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수도관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음.

그밖에 공중목욕탕과 체육관, 두 개의 극장, 1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도 발굴되었음.

Q : 폼페이의 현재 발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A : 1748년에는 당시 이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가 독점 사업으로 폼페이에 대한 발굴을 시작했으나 이들의 발굴은 약탈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음. 아름다운 출토품만이 중요하게 취급될 뿐 나머지 유물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음. 또 모자이크나 벽화 같은 미술품들도 충분한 조사도 없이 모조리 프랑스 왕궁으로 실려가버렸음.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면서 폼페이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음. 이탈리아 국왕 빅토르 에마뉴엘 2세는 고고학자 주세페 피오렐리를 발굴대장으로 임명하고, 조직적인 발굴을 지시. 이렇게 해서 유적에 대한 구획 정리와 함께 본격적인 수리와 보존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발굴단은 유적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빈 공간에 석고를 부

어넣어 당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음.

그 후에도 폼페이 발굴은 계속되어 현재는 도시의 약 5분의 4가 모습을 드러낸 상태이며 이곳에서 많은 출토품들은 현재 나폴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음.

❑ 시 사 점

○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하늘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로 순식간에 뒤덮어버리면서 사라진 도시였으나 우연한 기회로 발굴되면서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탈바꿈하고 관광자원화된 사례임

○ 지속적인 발굴작업과 연구조사를 통해 고대도시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비록 유적의 규모나 가치는 다를지언정 우리의 유적 복원 및 활용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경우,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와 초석 확인을 통한 선화당 규모의 추정 등, 복원사업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일련의 사태들은 역사유적 복원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이었는지를 보여줌

○ 현재 전라감영복원사업이 진행중에 있지만 향후 복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복원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성공적인 유적복원 및 활용사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임

※ 현상의 복원에만 치우친 채 복원사업 종료를 완료형으로 보는 시각 지양

❑ 방문사진



방문 사진



방문 사진

4 피렌체 유적지

❑ 방문목적

○ 피렌체 유적지 방문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고, 영화를 통한 도시 홍보 등의 방안을 적극 벤치마킹

❑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24(토) 11:00 ~ 12:00

○ 장　　소 : 피렌체 유적지

○ 면 담 자 : 겸임교수 및 담당 공무원 Mr. Roberto

○ 내　　용 : 피렌체 유적지 현황 등 청취 및 질의답변, 기념품 전달 등

❑ 주요내용

○ 피렌체는 로마 북서쪽 233km, 아르노강(江)의 양안(兩岸)과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음. 피렌체 근교의 아르노강 연변의 저지대는 신흥 공업지대로 상공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근대적인 대도시로서 아르노강 연변의 교통로와 아펜니노 산맥을 넘는 교통로의 요지이기도 함. 피렌체의 역사는 BC 10세기 무렵의 취락 빌라노바에까지 거슬러 올라감. 도시로서의 발전은 BC 2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로마에서부터 뻗어오는 카시아 가도(街道)의 중심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당시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부분은 현재의 시가 중심부와 일치하며 폰트베키오(다리)의 우안(右岸)에 해당하기도 함.

○ 제정(帝政)시대에는 토스카나・움브리아의 중심이 되고 프랑크 왕국의 지배하에서는 백작령(伯爵領)의 중심이 되었으나, 11세기 후반 마틸데의 시대까지 도시의 발전은 정체(停滯)상태였음. 마틸데 사망 후 12세기 전반에 코무네로서 독립하고 좌안의 보루고 지역을 병합해서 발전하였음. 12세기 무렵부터 산업, 특히 모직물공업이 발전하여 많은 직물상인이나 귀금속상인이 각기 조합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피렌체는 유럽의 상공업・금융업의 중심이 되었음. 13세기에 이르러 교황당(教皇黨:겔프)과 황제당(皇帝黨:기벨린)과의 싸움이 피렌체시(市)뿐만 아니라 전(全)토스카나 지방, 나아가서는 전이탈리아를 휩쓸었으며, 이때 피렌체는 피사 등의 인근도시를 지배하여 강대한 공화국이 되었음. 1300년에 비롯된 백당(白黨)과 흑당(黑黨)은 단테를 망명하게 하였으나, 이 무렵의 피렌체는 이미 인구 10만을 헤아렸고,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이탈리아의 중심이 되어있었음. 15세기 초부터 메디치가(家)가 시정(市政)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는데, 코시모 및 손자인 대(大)로렌츠는 실질적으로 메디치가의 독재체제를 확립하여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으로서 그 황금시대를 맞이하였음.

❑ 질의답변

Q : 르네상스 시대에 피렌체가 정치·경제·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A : 중세 시대를 시작으로, 피렌체의 자본(황금으로 된 플로린)은 영국에서 브뤼허, 리옹, 헝가리에 이르는 유럽 전역의 경제 발전에 자금을 댔으며, 피렌체 은행가들은 백년 전쟁 동안에 잉글랜드 왕에게 자본을 대기도 하였고, 마찬가지로 아비뇽 수도 건설과 로마로 귀환 후, 로마의 재건사업 등에 참여함.

피렌체는 이탈리아 귀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귀족 가문인 메디치 가문의 고향이기도 함. 로렌초 데 메디치는 15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정치적 문화적 마스터 마인드로 뽑힘. 메디치 가문은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해내기도 했는데, 이들은 16세기 초의 교황 레오 10세와 교황 클레멘스 7세임. 카테리나 데 메디치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혼인하였으며, 1559년에 그가 사망한 후, 프랑스의 섭정으로서 군림했었음. 메디치 가문은 1569년 코시모 1세 데 메디치를 시작으로 토스카나 대공으로 군림했으며, 1737년 잔 가스토네 데 메디치의 사망으로 피렌체의 쇠퇴기를 맞게 됨.

Q : 피렌체가 이탈리아 관광에서 로마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나?

A : 피렌체는 로마, 베네치아와 더불어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임. 이런 피렌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많은 영화의 배경이 되었음. 두오모나 미술관은 말할 것도 없고 골목과 광장 등에서 수많은 영화가 촬영되었음. 대표적으로 〈전망 좋은 방〉, 〈여인의 초상〉,

〈한니발〉, 〈토스카나 태양 아래서〉, 〈무솔리니와 차 한 잔을〉, 〈냉정과 열정 사이〉 등이 있음.

영화의 배경지로 빠짐없이 등장하는 곳은 시뇨리아 광장과 두오모, 두오모 종탑, 베키오 다리, 산타 크로체 성당, 피티 궁전, 그리고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미켈란젤로 언덕 등, 그 중에서도 두오모와 시뇨리아 광장은 어김없이 몇 차례씩 등장하는 영화의 단골 배경지로서 자주 등장하게 되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

❑ 시 사 점

○ 피렌체가 이태리 관광에서 로마와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두오모 성당이나 미술관 같은 종교 문화시설 때문만은 아님. 대형 건축물 외에도 골목과 광장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영화의 배경장소로 활용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이것이 유명 관광지로서 부상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됨

○ 이는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민간투자나 시설투자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도시 곳곳의 평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요소들을 가지고도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하드웨어 개발)를 동일시하는 행정의 인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에 주목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방문사진



방문 사진



방문 사진

5 우피치 미술관

❑ 방문목적

○ 우피치박물관의 관람 형태, 방법 등을 통해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 벤치마킹해야할 부분을 확인 점검

○ 미술 작품 등의 소장품에 대한 선진화된 관리방안을 우리도 실정에 맞게 적용

❑ 방문개요

○ 일　　시 : 2016. 9. 25(일) 10:00 ~ 11:30

○ 장　　소 : 우피치 미술관

○ 면 담 자 : Ariel Minio 큐레이터

○ 내　　용 : 미술관 운영현황 청취 및 작품 관람, 질의답변 등

❑ 주요내용

○ 우피치 단지의 건물은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가 메디치 가의 코시모 1세를 위하여 1560년도부터 건축하기 시작하였음. 그의 치안 판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피치(uffizi)는 이탈리아어로 사무실을 뜻함. 그 후 알폰소 파리지(Alfonso Parigi)와 베르나르도 부온탈렌티(Bernardo Buontalenti)가 이어서 건축하여, 1581년도에 완성하였음. 안마당은 상당히 길고 좁으며, 끝에 가서는 공간을 구획짓는 도리아식 기둥들을 지나 아르노(Arno) 강으로 열려 있음. 건축역사가들은 이것을 유럽 최초의 규칙적인 가로(街路)라고 인정하기도 함.

○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바사리(Vasari)는 마주보는 정면의 연속적인 처마 돌림띠(cornice)와, 층 사이의 끊어지지 않는 돌림띠, 그리고 궁궐의 정면이 서 있는 연속적인 3개의 계단을 통해 원근법적 길이감을 강조하였으며, 기둥사이의 벽의 벽감(壁龕, niche)(서양 건축에서,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부분. 조각품 등을 세워 둠.)에는 16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의 조각으로 채워져 있음.

❑ 질의답변

Q : 우피치 미술관 소장품중에 유명한 작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A : 미술의 도시 피렌체에는 많은 우수한 미술관이 있는데 우피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음. 건물은 1560년 <화가열전(畵家列傳)>으로 이름 높은 바사리의 설계로 시작되었는데 원래는 메디치 가(家)의 궁전으로서 사용되었음. 우피치는 영어의 오피스에 해당하는 말이며, 콜렉션의 주체는 메디치가문 대대로 이어오는 수집을 모태로 하고 있고, 더욱이 보티첼리의 <봄>,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성가족(聖家族)>, 라파엘로의 <방울새의 성모>,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 등은 명작 중의 명작으로 알려져 있음.

Q : 우피치 궁은 어떻게 하여 현재는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A : 미술관의 역사는 이 건축이 완성된 1584년에 시작되나, 미술품 수집의 역사는 더 오래 되어, 15세기 전반부터 피렌체에 군림한 메디치가의 코시모 일 베키오(1389~1465)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감. 메디치가의 최후의 6대 토스카나대공 잔 카스토네(1671~1737)까지 거의

200년간 막대한 미술품 제작을 예술가들에게 의뢰하고 또 작품이 수집되었음. 코시모 1세의 시대부터,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메디치가와 그 집에 연고가 있는 미술품을 여기에 모으기 시작하여, 1737년 메디치가의 최후의 사람으로서 우피치궁의 미술품을 계승하고 있던 안나 마리아 루드비카가 토스카나 대공국에 기증하였고, 그녀의 뜻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었음.

그 후 이탈리아 통일에 의하여 국립미술관이 되어 1800년에 조각류가 국립바르젤로미술관과 국립고고미술관에 분할되었음.

❑ 시 사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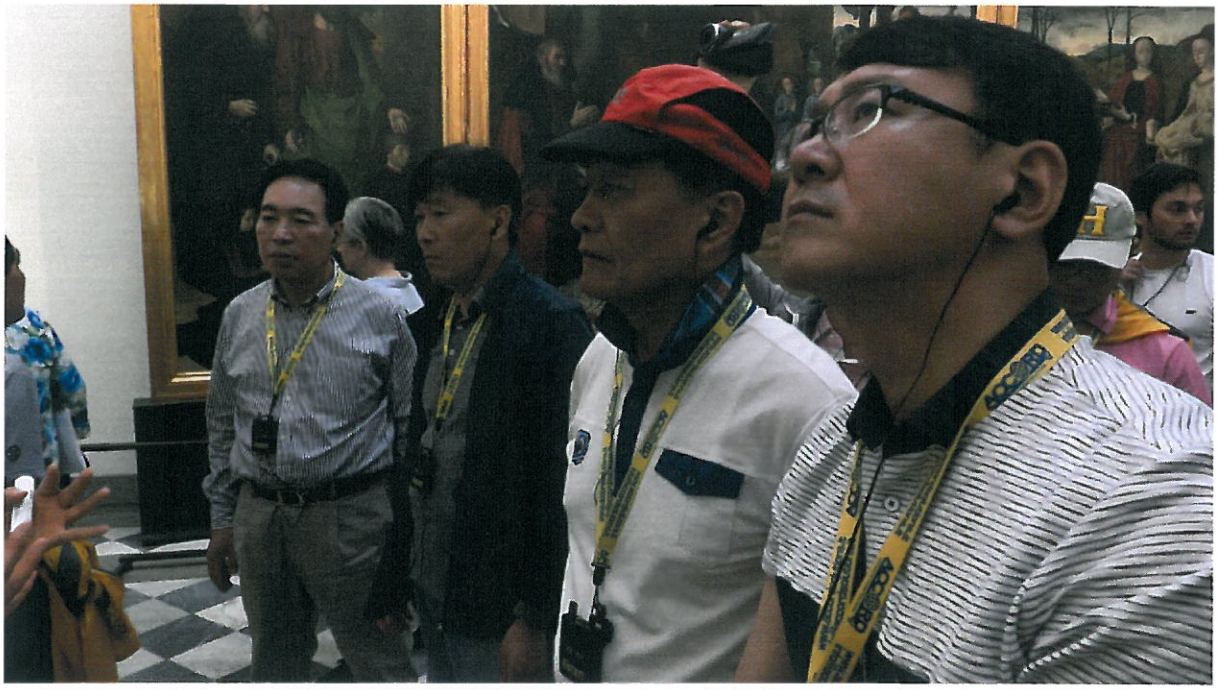
○ 우피치 미술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보다 미술관의 컬렉션(소장품)이 지닌 중요성임

○ 수많은 걸작들을 컬렉션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세계 유수의 미술관 중 가장 뛰어난 미술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입장객 수입이나 인근 상권의 활성화 등 복합적인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컬렉션의 규모와 질이 곧 미술관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도립미술관의 컬렉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정책적 시도가 필요할 것임

○ 예컨대 연간 2~3억 원의 소장품 구입 예산을 회계연도 원칙에 입각해서 소액다건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유수의 작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문사진



방문 사진



방문 사진

❑ 종 합 시 사 점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현재 문화유산, 근대건축물, 경관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를 음악·미술·대중문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전라북도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도내 관광지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연계화하고, 관광객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더 많이 발굴된다면 민선 6기 토탈관광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토탈관광이라는 정책 개념이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폼페이, 피렌체 사례와 같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연수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탈리아는 쇼핑의 천국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데, 도시에는 빼어난 솜씨를 가진 공예가와 디자이너가 넘쳐나고, 다양한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문 상점이 즐비함. 전시된 상품은 놀랄만큼 품질이 우수하고 화려한데, 구치(Gucci), 아르마니(Armani), 발렌티노(Valentino)와 같은 고급품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려는 세계적인 부호들이 모여들고 있음

○ 다른 유럽 나라와는 달리 이탈리아는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는 고급화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을 잘 홍보하고, 관광객이 반드시 면세점 등을 통해 구매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할 것임.

○ 여기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편리하게 주요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곧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제2절 선진지 정책 벤치마킹

1 이탈리아의 관광정책

○ 세계 외국인 관광객 수 5위의 관광국가 이탈리아는 연간 약 4,800만 명의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풍부한 유형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 이를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유형문화유산의 유지·보수 인력 양성, 유지·보수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문화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기초로 하여 이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연계,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총 43건, 우리나라 11건)로, 특히 역사지구와 같이 도시전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곳이 다수를 차지함

○ 역사지구는 수 세기를 거치는 동안 단순히 주택, 도로 등의 물리적 시설만의 보전을 넘어서 지역주민과 지역문화 등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의 소통과 협의, 원칙 등을 통해 가능했음

○ 뿐만 아니라 올해로 56회를 맞는 베니스 비엔날레(영화, 미술, 건축 등)를 비롯하여 2천 년 전에 지어진 베로나 원형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베로나 오페라 페스티벌 등 역사 깊은 세계축제를 비롯하여, 자국 음식문화의 고유성 확보와 국제화를 위해 카푸치노 국제표준(ISO) 인증 및 피자, 스파게티 등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2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보전 정책

○ 주요특징

· 이탈리아 문화유산 보존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복원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임

· 특히 국가기관의 복원기술 표준화 및 연구 성과물의 제공을 통한 활용, 첨단 기자재 공동 운용을 통한 연구업무 효율성 및 활성화, 인력풀 활용을 통한 유연한 인력 운용방안 수립 등이 주요 정책임

·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프로젝트 수행과 함께 각 기관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상호협력과 공동연구 수행, 공동기기 사용 등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간의 협력, 주변 대학과의 협력 및 소속 학교와의 연계성을 확보함

· 또한, '영원의 도시(로마)'의 문화재 보존에 모든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정기적인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는 문화재는 철저한 역사고증과 고건축 기술을 동원해 유지보수를 시행함

· 보수가 시작되면 통행이 철저히 금지되고 신문, 방송 등 미디어들은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존 정책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음

○ 조직과 인력

[행정부서]

· 이탈리아 문화재 행정은 소프린텐덴짜(Soprintendenza)라는 별도부서에서 수행하는데, 이 부서는 중앙정부부처, 주단위, 시단위 마다 각기 존재함

· 소프린텐덴짜는 '건축학·고고학'과 '도시경관'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행정부서는 예산분배, 연구계획 수립, 전문가팀 구성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함

[문화재 보존복원관련 국립연구기관]

· 문화재 복원전문기관과 복원연구기관으로 나뉨

· 대표적인 문화재 복원전문기관으로는 문화유산부 소속 최상위보존복원기관(ISCR, Istituto Superiore per la Conservazione ed il Restauro)으로 이탈리아 복원기관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로마시내 2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icr.beniculturali.it)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도 진행 중임

· 그밖에 국립복원학교(Scuola)는 학비가 전액 무료이며, 교수 1명이 학생 4~5명을 담당하고, 복원실에서 각종 복원작업 실습을 병행함. 회화보존복원분야 중 유럽에서 가장 큰 복원기관 중 하나인 국립복원연구소(OPD, Opificio delle Pietre Dure e Laboratori di Resrauro)도 운영하고 있음

[문화재 보존복원관련 교육대학연구부 소속 복원연구기관]

· 문화유산보존진흥연구소(교육부소속), 물리학연구협회, 베네치아문화재연구소 등

· 복원전문기관의 기본 목적은 문화재 원형을 복원(보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복원연구기관의 경우, 문화재 원형 복원을 위한 새로운 재료와 약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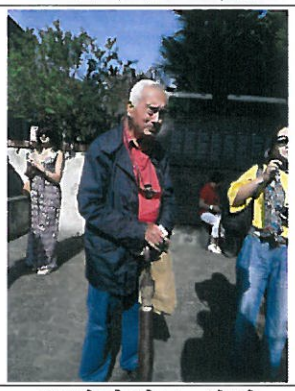
3 이탈리아의 로컬가이드 정책

○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로컬가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탈리아 「관광법」에 따라 외국인단체관광객의 경우,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로컬가이드'를 반드시 동반하도록 규정함

○ 이 규정은 첫째, 이탈리아 문화재에 대한 해설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설의 신뢰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또한 둘째, 관광도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임

○ 이 제도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로컬가이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법을 위반할 경우(로컬가이드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입장이 불가함

<table>
<tr><td></td><td></td></tr>
<tr><td>로컬가이드 사진</td><td>로컬가이드 사진</td></tr>
<tr><td></td><td></td></tr>
<tr><td>로컬가이드 사진</td><td>로컬가이드 사진</td></tr>
</table>

4 이탈리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에는 장애인·노약자·유모차가 편리하게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었음

○ 특히, 베네치아의 경우 도시의 주요 대중교통으로 수상버스, 수상택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규정에 따라 부두시설 및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진출입과 장애인석을 별도로 마련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함

○ 대중교통 등 교통시설에서부터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휠체어이용자와 임산부, 유모차, 노인 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리프트)이 잘 갖추어져 있었음

○ 관광지 내에서도 길 안내표지판 등에서 시청각 장애인도 보기 편하고,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섬관광을 위한 유람선에서 장애인, 노인 등 누구나 관광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좌석 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도내 관광지 및 축제 등의 안내시설(물) 제작 시에도 시·청각, 지체 장애인, 유모차 등 모두가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제작 및 안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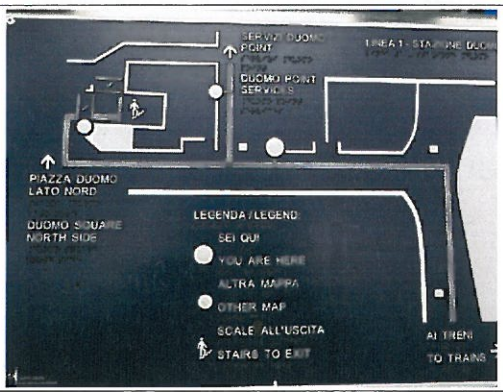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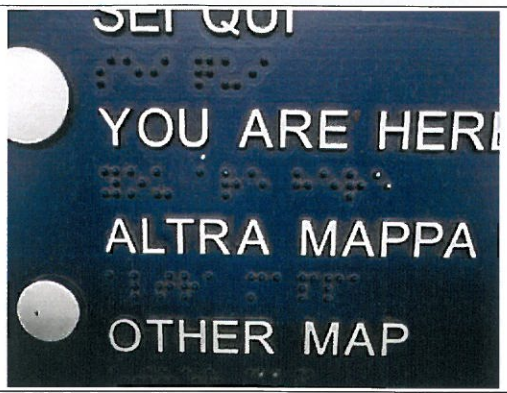
무라노섬 여객터미널 휠체어 전용 통로





수상버스(배) 입구에 있는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인, 유아동반) 전용좌석





우피치미술관 위치안내판(점자표시)





바티칸박물관(1773년 건축) 계단 옆 휠체어 리프트 설치(리모델링)

○ 관련사진

	
계단과 경사로(휠체어, 유모차 이용) 함께 설치	기존 보행로 턱을 깎아 휠체어, 유모차 이용 가능
	
포로로마노 유적지(야외)내 길 안내표지판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 도로 별도 안내

5 로마 건축양식

○ **이탈리아 로마의 건축양식**

- 건축재료

· 화산재와 석회를 혼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건축물의 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구조 및 시공기술의 발달로 대규모화 및 양식의 획일성 등을 유도함

· 석재 및 벽돌을 이용한 조적술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아치, 보울트 등의 기법을 사용함

- 구조

· 조적식 구조의 아치(arch) 및 볼트(vault)기법을 발전시켜 구조체로 사용하고, 그리스의 석조 가구식 구조는 장식적 기법으로 활용함

· 아치와 볼트 기법의 발달, 배럴볼트에서 교차볼트를 거쳐 돔으로 발전함

- 대규모 공간의 형성

· 콘크리트 및 구조, 시공 기술의 발달이 대규모 공간의 형성을 가능케 함

·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군사적 강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건설(콜로세움, 베로나 등)함

· 그리스가 형태위주의 조각적 건축을 추구한 반면, 로마는 공간위주의 대규모 건축을 추구하였으며, 서양건축 역사상 본격적인 내부공간을 형성한 것은 로마건축이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주범양식(Order Style)

· 그리스 건축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식의 세 가지 주범과 더불어 터스칸식 주범, 복합식 주범 등 다섯 가지 주범 양식을 사용함

· 터스칸식 주범 - 그리스의 도리아식 주범을 단순화시킨 주범임

· 복합식 주범 - 이오니아식 주범과 코린트식 주범을 복합시킨 주범양식으로 매우 장식적이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개선문과 같이 화려한 건물에 주로 이용됨

○ 로마인들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 혹은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하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건축물을 지어 다음 세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음. 콜로세움은 로마식 구조와 그리스 기둥양식이 결합해 그 이후 건축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매우 효율적으로 건설되어 오늘날 스타디움의 디자인에 응용되고 있음.

제3장 연수 결과

1 문화관광지로서 브랜드 구축을 위한 장기 전략의 중요성

○ 이탈리아는 고대시대 세계의 중심으로서 수많은 역사문화 유산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풍부한 무형의 콘텐츠와 유형의 자원 보유)

○ 이러한 풍부한 유산을 하나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가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음

○ 주목할 점은 풍부한 유산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임

※ 수십 년에 걸친 문화재 복원, 보존지구 지정을 통한 철저한 규제 등

○ 특히, 도시 전체를 보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야기되는 시민들의 막대한 불편과 행·재정적 자원의 투입은 단순히 자원 자체의 보유가 성공적인 문화관광지 조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역시 타 시도와 차별적인 문화, 역사, 예술 등 무형의 콘텐츠와 유형의 역사문화유산에 정책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의지와 전략이 필요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임기 만료나 교체 등 정치적 요인이 장애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해 보임

※ 제도적 장치, 행정/언론/학계/시민사회/일반도민들 사이에 합의된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의식 정립 등

2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학술 연구조사의 중요성

○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의 일방적인 활용에 앞서 학술 연구조사 활동에 집중하는 노력을 경주해왔음

○ 즉, 고대와 중세 로마의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이면에는 순수 학술 연구조사 활동의 선행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아직도 공공부문에서의 학술적인 연구조사 활동이 왕성하게 진행 중

○ 흥미로운 것은 학술 연구조사가 그 자체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며, 향후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임

○ 순수 학술조사 활동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투자는 자연스럽게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다시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학술조사 활동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의 구조로 이어짐

○ 반면, 전라북도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관광자원으로서의 역사문화유산은 다른 관광자원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술연구조사 활동은 주(主)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은 부(副)의 요소로 설정하여 접근한다면 백제역사유적지구와 같은 역사문화유산의 활용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배가 될 것임

3 전문인력 확보와 관광활성화의 상관관계 : 전문가이드 육성과 배치

○ 이탈리아에서 여행가이드는 국가가 주관하는 일정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활동 가능

○ 여행가이드 인증을 위한 국가고시는 이탈리아의 역사적 스토리와 특정 시대 인접국가와의 정치·경제·문화적 교류의 맥락, 특정 문화유산의 미학적 가치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난이도 있는 시험

○ 따라서 여행가이드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활동하는 만큼 가이드로서의 자부심이 크며,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종으로 자리매김함

※ 여행가이드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민간 홍보대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

○ 전라북도에서도 투자하여 육성·배치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역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고, 이에 마땅한 처우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역관광산업 육성의 근간으로 인식하려는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며, 단기 육성 프로그램을 최소 1년의 프로그램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또는,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를 확대·육성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제5장 연수 후기

1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장

○ 문화유산 사업의 적절한 개발과 보전이 필요하다.

◈ 선진국의 문화재 유지관리와 활용방안을 이탈리아 국가를 돌아보며 벤치마킹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도내 문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개발과 보전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전환의 계기가 됨.

○ 문화유산, 근본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 국내에서도 문화재 보존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광객 관람 동선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보존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자연재해를 비롯한 균류나 곤충 등의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세밀한 예방책은 부족한 실정임. 대한민국은 이미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소실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었음. 문화재가 그 가치를 잃고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비극은 한번이면 족하니 파손 후 대책이 아닌 문화재 자체가 천재지변에 파손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함. 훼손에 대한 복구방안이 아닌 훼손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보존방안이 필요한 때임.

○ 도시 전체를 관광 상품화하듯, 독특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

◈ 이탈리아의 경우 폼페이, 피렌체 등 한 도시 전체를 관광 상품화하여 이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유명 영화광고 등의 촬영지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음.

◈ 우리나라처럼 단순 세트장을 지어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도내 유명관광지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경관·도시야경 등을 개발하여 영화산업과 접목하여 전북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지로 추천할 수 있겠음.

○ 단점을 활용하면 관광 상품이 된다.

◈ 유럽의 경우 대부분 물 부족의 나라로서 식수를 대신해 와인을 생산하여 식수 대용품으로 이용하면서 세계 최고의 주류시장을 개척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최첨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건강프로젝트, 농가 민박, 낚시 등 휴가특수전문 상품 등 테마 있는 관광 마케팅으로 관광 수입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불편함보다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된다.

◈ 중세 절대군주의 부산물인 왕궁, 성, 성당, 동상, 다리 등을 고스란히 잘 보존하기 위해 실생활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용함으로써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적극적인 관광지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국제공항과 신항만의 빠른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호남 KTX 정차역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동북아 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음.

2 문화건설안전위원실 직원

○ 문화유산은 보호 대상이자 관광 자원이다.

◈ 도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라면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연구였음. 즉, 이탈리아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스토리화 하여 연간 5천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향후,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향토문화(음식문화, 생활문화 등), 세계문화유산(고창 고인돌, 람사르 습지, 판소리 등) 등을 보다 면밀하고 정교하게 상품으로 구성하여 이탈리아의 로마와 같이 세계인이 전북을 찾도록 글로벌 관광목적지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유명한 화가와 영화를 활용하여 관광명소화 하다.

◈ 가령, 이탈리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유산을 관광상품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였고, 로마의 휴일에서 나온 트레비분수, 진실의입처럼 영화 속 명소를 가지고 관광을 특성화시켰으며, 여기에 미술관과 각종 박물관을 적절히 배치하였음.

◈ 이를 통해 해당지역의 역사성을 잘 표현해내고 있기에 이를 우리의 세계문화유산 상품화에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의 관광기반 시설

개발을 통한 이익창출과 더불어 세계문화유산의 자원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국가 또는 지역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정책과제로 삼을 만함.

○ 다양한 소재가 관광 상품이 된다.

◈ 따라서 향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문화유산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도시재생 등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지역의 관광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해설사가 답이다.

◈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역관광산업 육성의 근간으로 인식하려는 행정의 변화가 시급하며, 단기 육성 프로그램을 최소 1년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 문화관광해설사가 곧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16. 10월 발행

발　　행 :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ssem.jeonbuk.kr